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Karbon Story

WEEKLY REPORT
VOL.26
2025.12.15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세계은행, ITMO 수익과 연동된 세계 최초 성과 기반 채권 출시

- EU, 최종 CBAM 규정 확정, 벤치마크·기본값 규칙 강화

- 영국, 분기별 무상할당에 맞춰 CBAM 비용 조정 예정

- UK ETS, 2027년 무상 할당량 2.5% 축소 확정

- 프랑스 중앙은행: AI로 기업 배출 공시 공백 메운다

- 네팔, 첫 국가 탄소거래 규정 발표, 산림 기반 ITMO 수출 본격화

- 골드스탠다드, 쿡스토브 프로젝트에 CCP 라벨 첫 부여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세계은행, ITMO 수익과 연동된 세계 최초 성과 기반 채권 출시

세계은행이 가나의 청정 조리기구 보급을 위해 2억 달러 (약 0.3조 원) 규모의 성과 연계 채권을 발행

동 채권은 투자자 이자의 일부를 선지급해 40만 개 이상의 조리기구 보급 자금으로 활용함. 배출 감축을 통해 ITMO를 생성하고, 스위스 KliK 재단이 이를 구매하여 그 수익 일부가 채권 투자자의 변동 이자로 돌아오는 구조

이는 채권 현금흐름을 ITMO 생성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며, Article 6 사업들이 겪어온 선행 자금 조달의 주요 장벽을 극복하고, 개발 성과 (건강 개선, 배출량 감축)와 금융 수익을 일치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COP30에서도 구매자의 불확실성이 지적된 바, 이러한 성과기반 금융이 감축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 및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

출처: https://www.worldbank.org

Back to Top

EU, 최종 CBAM 규정 확정, 벤치마크·기본값 규칙 강화

EU가 2026년 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최종 규정을 확정, 수입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

EU가 정한 기준 배출량인 벤치마크 값이 기존 초안보다 더 낮아져 무료할당 조정이 줄어들었고, 동시에 국가·제품별 기본 배출값이 크게 상향되면서 실제 배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CBAM 비용이 크게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남.

특히 수소, 시멘트, 철강 등 배출 강도가 높은 품목에서는 EU 벤치마크와 기본값 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어 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미 철강 거래에서는 비용 노출이 약 18% 상승하는 등 영향이 현실화되는 추세

이러한 변화는 개도국 생산자들에게 MRV 구축을 사실상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며, EU는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체계를 통해 무료할당 폐지 과정의 탄소누출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강화

출처: https://carbon-pulse.com

Back to Top

영국, 분기별 무상할당에 맞춰 CBAM 비용 조정 예정

영국은 2027년부터 시행될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부과 금액을 UK ETS 가격에서 해당 산업의 무상할당 기준 비율만큼 차감해 산정할 예정

무상할당은 2027년부터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제공되는 전기요금 보상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CBAM 적용품목 (철강·알루미늄 등)의 간접배출은 최소 2029년까지 미포함될 예정

영국의 세금·관세·국경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HMRC (HM Revenue &Customs)는 2026년 초 기술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2027년 이전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

UK CBAM 적용 품목은 EU CBAM과 유사하게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등으로 구성 (전력은 제외)

출처: https://kpmg.com/uk

Back to Top

UK ETS, 2027년 무상 할당량 2.5% 축소 확정

영국 정부가 2027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ETS)의 무상 할당량을 2.5% 줄이기로 공식 확정

이는 영국 CBAM 도입 일정에 맞춘 방식으로 EU의 5% 감축보다 완만한 속도

특히 영국 당국은 현재 유동성이 큰 EU ETS와의 시장 연계를 협상 중이므로, 2031~2040년으로 예정된 2단계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제도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함.

시장의 관심사였던 공급 과잉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공급 조정 메커니즘 (SAM, Supply Adjustment Mechanism)을 미도입 하기로 결정

당국은 기존의 가격 기반 메커니즘만으로도 위험 관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영국과 EU 간의 탄소 배출권 가격 격차 (스프레드)를 좁히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출처: https://carbon-pulse.com

Back to Top

프랑스 중앙은행:
AI로 기업 배출 공시 공백 메운다

프랑스 중앙은행이 금융 부문의 기후 위험 평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미공개 탄소 배출량 데이터 공백을 메울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머신 러닝 (ML) 모델을 개발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한 비율이 50% 미만에 그치는 상황에서, 프랑스 중앙은행은 통계학자이자 머신러닝 분야의 선구자 Breiman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활용, 미공개 탄소집약도의 약 70%를 높은 정확도로 추정할 수 있음을 입증

다만, 저배출 기업을 과대평가하고 고배출 기업을 과소평가하는 한계가 있어 ML모델이 전문가 판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보완 도구임을 시사

이러한 AI 활용은 대규모로 누락된 데이터를 추정하여 중앙은행의 전환 리스크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기여함을 목표로 함.

동시에 최근 유럽중앙은행이 기후 리스크 규정 미준수 은행에 첫 제재를 부과한 사례를 통해 중앙은행들의 기후 관련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

출처: https://www.banque-france.fr

Back to Top

네팔, 첫 국가 탄소거래 규정 발표
산림 기반 ITMO 수출 본격화

네팔이 국가 차원의 최초 탄소거래 규정을 도입하며 산림 기반의 Article 6.2 ITMO 수출을 공식화함.

중앙정부만이 ITMO 승인·이전 권한을 가지도록 설계해 민간의 독립적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거래를 국가 레지스트리에 기록하도록 한 점이 특징. 국제 탄소 수익은 국가 기후기금으로 들어가며, 지역사회에 우선 분배되는 구조

프로젝트 생성 크레딧의 최대 5%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에 반영하고, 민간 프로젝트 주체는 배분받은 수익 중 10%를 정부에 재납부하도록 의무화함.

산림이 국토의 46%를 차지하는 네팔은 기존 REDD+ 감축 실적에서 검증된 저감·제거량을 기반으로 국제 바이어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ITMO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시사

이미 스웨덴과 거래를 체결, 한국·일본·싱가포르와도 협상이 진행 중으로 산림 기반 탄소 프로젝트가 네팔의 새로운 외화 수익원이 될 전망

골드스탠다드, 쿡스토브 프로젝트에 CCP 라벨 첫 부여

골드 스탠다드가 쿡스토브 (Clean cooking)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크레딧에 처음으로 CCP (Core Carbon Principles) 라벨을 부여

CCP는 ICVCM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이 만든 고품질·고무결성 탄소 크레딧 인증 기준으로, 시장에서 중요한 신뢰성 기준이 됨.

이번 라벨링은 케냐·토고·나이지리아·몽골의 네 개 프로젝트에 적용되었으며, 연료 사용 감소, 삼림파괴 억제, 실내 공기질 개선 등 다중 효과를 제공하는 활동들이 포함

골드 스탠다드는 현재까지 총 약 640만 톤의 CCP 적격 크레딧을 발행했으며, 이 중 350만 톤이 이미 소각 (retired)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중국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채권,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